

# 윤 “토론하면 싸움밖에” vs 이 “정치 안하겠단 얘기”

이재명-윤석열 TV토론 충돌  
민주 “정책·능력·비전 검증”  
국힘 “토론도 격이 맞아야”  
정의당 “초등생 때부터 토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TV토론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윤 후보는 이날 방영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에 대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토론을 하면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 해보니"라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걸 시청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싸움밖에 안 나온다"며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나라의 공적인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뽑는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걸 검증해나가는 데 정책 토론을 많이 하는 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16번 했지만, 그 토론 누가 많이 보셨나요?"라고 물으며 웃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마크맨들의 수다'에 나와 "결국 논쟁을 보고 국민은 판단, 선택하는 것인데 그 기회를 안 주겠다는 애

기"라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장이 다른 사람이 당연히 존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정치"라며 "논쟁이 벌어지고 서로 설득해야 하고 타협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다름인데 이걸 회피하면 정치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상을 봤는데 정치는 그런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긴 했다"며 "대의 정치에서 정치인이 취할 태도로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도 다름을 통해 판단한다"며 "괴로울지 몰라도 즐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야 대선인들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선대위 강선우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싸움을 핑계로 토론 회피의 명분으로 삼았으나, 결국 윤 후보는 자질 검증, 도덕성 검증, 정책 검증이 무

겁다고 자인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에게 대한 예의도 저버린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남영희 대변인도 SNS에 "최근 잇따른 실언을 막고자 국민의힘 선대위가 고심 끝에 내놓은 방안인가"라며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할 사람이 누구인지, 대선 후보 각각의 정책과 능력, 비전과 가치를 검증하고 싶어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요즘은 초등학생 때부터 토론을 한다"며 "토론 시간에 자기 생각 이야기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대선후보라니 이런 코미디가 아니면 뭔가"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윤석열 선대위의 장순철 상근대변인은 논평에서 "기본소득 절취, 국토보유세 포기, 부동

산공약 뒤집기, 탈원전 정책 포장하기. 자고 일어나면 공약이 바뀌는 후보와 무슨 토론을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토론도 격이 맞아야 할 수 있다"며 "아침저녁으로 입장이 바뀌고 유불리를 따지며 이말 저말 다하고 아무 말이나 지어내는 후보 얘기를 굳이 국민 앞에서 함께 들어줘야 하나"라고 받아쳤다. 장 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토론 때문에 지지를 떨어지자 코로나 핑계 대고 토론을 취소시켜서 당원과 타 후보 측에 항의받은 분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초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이달 20일 자영업자 피해단체 간담회에서 각각 양자 토론이 추진됐으나 윤 후보가 불참하면서 불발된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반상회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공산후소리원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여명, 선대위 청년본부장직 사퇴

### 신지에 영입 반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의 여명 공동청년본부장은 지난 25일 윤석열 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신지에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영입을 비판하면서 선대위직 사퇴 선언을 했다. 여 본부장은 페이스북에서 "악성 페미니즘, 민노총과 한통속인 공공노조, 이석기를 구명해달라는 비전향 좌익인사까지, 제가 비판해왔던 모든 것을 옹호할 수는 없다"며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서 신 전 대표가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시절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을 촉구

하기 위해 청와대에 제출한 탈원전에 서명했다는 기사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나도 모르겠다. 이젠"이라고 썼다. 그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신지에 쓰는 국민의힘으로서서는 쓸 수 없는 카드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그 말이 진심이라면 신씨 스스로 선대위에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그녀는 '내 목소리를 지우지 않을 것'이라며 자존심을 세웠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당원인 탈원전 중단 및 원전 강화, 귀족강성노조 타파, 귀어촉진 반대, 재개발-재건축 전면 허용 등 신씨가 비판해 온 모든 가치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 건가"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충청권 신산업벨트 조성 일자리 창출

### 윤석열 경제 공약 발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6일 "정치의 최종목표는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면서 행복 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6가지 세부정책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로, 세대별·계층별·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펴겠다"며 "아울러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두통하고 총출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 공약의 기초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충청권 신산업벨트 조성,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확대해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근로장려금(EITC)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보도 약속했다. 윤 후보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크게 ▲융합산업 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 ▲세대별 맞춤형 일

자리 정책 ▲중소·중견기업 신산업 진출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오송·오창·대덕·세종·익산 등 중원벨트를 중심으로 융합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과 최첨단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기술(BT),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 스마트제조, 식품기술(FT) 등이 융합사업 분야 핵심 기술이다. 디지털 웰스케어, 비대면 교육, K-콘텐츠 분야 등에도 규제혁신과 지원책을 통해 신산업 분야로 육성할 방침이다.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에는 2030 세대를 위한 대학 창업 기회화, 3040 세대를 위한 원격근무 스마트워크 확산·사내 벤처 활성화, 4050 세대를 위한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어려운 계층에 복지 재정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윤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근로장려금(EITC) 확대 ▲국민안심지원제도 확대개편 등을 골자로 한 복지정책도 발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박근혜와 관계 리셋' 숙제 안은 윤석열, 이번주 TK행

### 가족 리스크 등 해소 목소리 리더십 위기 돌파 여부 주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번주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을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직후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보수 정당의 심장부인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을 새로운 숙제로 떠안게 된 윤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26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오는 29~30일 1박 2일 간 TK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을 계획 중이다. 일찍부터 준비해 온 일정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맞물리면서 주목도가 높아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주도했던

윤 후보는 이같은 악연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부담감과 함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다른 지역보다 TK에서 높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을 의식한 과도한 발언은 중도층 민심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야말로 '양날의 칼'인 상황인 셈이다. 이 때문에 TK에서의 메시지 수위에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당내에서는 윤 후보가 해를 넘기지 말고 이번주 안에 각종 논란과 리스크를 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윤 후보 지지세 하락에 결정타가 된 것으로 지목받는 부인 김건희씨의 '하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인 김 씨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28일 있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선대위 차원에서 김씨가 이달 안에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비롯한 당 내홍과 선대위 개편 문제도 하루빨리 풀어야 할 문제로 꼽힌다. '정치 신인' 윤 후보의 리더십이 의심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조수진 최고위원과의 공개 충돌을 계기로 상임선대위원장 등 모든 선대위직을 내던진 이 대표는 의회에서 영입 윤 후보의 선대위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사실상 해체에 가까운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 후보는 물론 김종진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 개편에 선을 긋고 있어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양측은 이 대표의 선대위직 사퇴 이후 서로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